

김홍경의 奇經八脈觀에 관한 研究

- 陰陽維蹻脈과 四象體質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정해명¹ · 윤창열^{1*}

The reserch of Kim hong-kyung's view of extra meridians
-With the connection yin yang wei qiao mai With four trigram
constitution theory-

Jung Hae-Myeong¹ · Yun Chang-Yeol^{1*}

¹Dept. of Classic in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of Dae Jeon University

Subject : Kim hong-kyung(金洪卿)'s view of eight extra meridians

Object : Kim hong-kyung has not only deeply studied Saam acupuncture but also the function and characteristics of extra meridian at the same time. Especially, he has tried the study to connect yin yang wei qiao mai(陰陽維蹻脈) with Lee je-ma(李濟馬)'s four trigram constitution theory, therefore the author felt the need to make public the theory and started reserch on the theory.

Method : I researched the physiological properties of extra meridians through the past eastern medical literature, I reported on the types of people to show well the properties of extra meridians gathering Kum-oh's verbal explanation when I had classes from him.

Result : Kum-oh Kim hong-kyung defined meridians as passways of consciousness and feeling, he interpreted 12 meridians and extra meridians with the view of mind, which has very important meanings in the history of acupuncture in the point of first trial to interpret meridians from this view. He explained Ren mai(任脈) and Du mai(督脈) are meridians which show clearly properties of yin-yang to appear trusts of affirmation and distrusts of denial in the mind, as Ren(任) means entrusting and Du(督) means supervising in English. He explained Chong mai(衝脈) is the meridian representing impulsive man that has a meaning of impulse as being suggested the name of Chong mai, because Chong mai is borrowed from Foot shao yin kidney meridian(足少陰腎經). Dai mai(帶脈) is the meridian representing the characteristics of woman that has a meaning of binding as being suggested from the name of Dai mai which acts when people have something on their flank or they are pregnant, because Dai mai borrowed from Foot shao yang gall bladder meridian. He thought that four trigram divided from yin and yang is innate trigram, so Yang wei mai(陽維脈), Yin wei mai(陰維脈), Yang qiao mai(陽蹻脈), Yin qiao mai(陰蹻脈) among extra meridians have connections with Tai-yang ren(太陽人), Tai-yin ren(太陰人), Shao-yin ren(少陰人), Shao-yang ren(少陽人) of Four trigram constitution theory respectively which was created by Lee je-ma. He explained yang means opponents and wei(維) means binding. Yang wei mai is the meridian to be active when opponents bind or intervene in you, also the meridian is well active to the people who easily criticize others who are rude, to the people who well refuse restraints from organization. Because he explained yin means me and wei(維) means binding. Yin wei mai is the meridian to be active when I bind and intervene in opponents. He also state that the meridian is easily active to the people who have a tendency to gather people and make party apparatus by nature. He explained Yang qiao mai is the meridian to be active in the situation that people are waiting for others to bridge gap because yang means opponents and qiao(蹻) which has a meaning of standing on one's tiptoes means bridging gap between people.

He also state the meridian is easily active to Shao yin ren who has a tendency to be passive, to easily settle down and not to move by nature. He explained Yin qiao mai is the meridian to be active in the situation that I bridge gap between me and others to make friends, because yin means me and qiao(躡) which has a meaning of standing on one`s tiptoes means bridging gap between me and others. He also state the meridian is easily active to Shao yang ren who is active in every business and who has remarkable ability to make friends.

Conclusion : Kim hong-kyung stated the physiological properties of extra meridians as below. Ren mai is the meridian representing positive confidence which is easily active when people have a mind to trust others, Du mai is the meridian representing negative distrust which is easily active when people have doubts. Chong mai is the meridian representing the characteristics of man that has impulsive characteristics. Dai mai is the meridian representing the characteristics of woman to be easily active when she is pregnant. Yang wei mai has close connections with Tai-yang ren who has a tendency to refuse restraints from others and to criticize on opponent`s remarks and behaviors that are wrong. Yin wei mai has close connections with Tai-yin ren, as the meridian is active in the situation that people enjoy restraining and intervening in others. Yang qiao mai has close connections with Shao yin ren, as the meridian is active to the people who are negative and passive by nature. Yin qiao mai has close connections with Shao yang yin who has a strong tendency to make friends easily by nature.

Key words : Kum-oh Kim hong-kyung, Saam acupuncture, Four trigram constitution, Eight Extra Meridians.

I. 緒 論

金烏 김홍경은 한국 고유의 傳統鍼法인 舍岩鍼法을 재발굴하여 한국 한의학을 대표하는 鍼法으로 계승·발전시킨 인물로 舍岩鍼法을 한의과 대학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鍼法의 하나로 정립 하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국내외 임상가들에게 舍岩鍼法을 널리 보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의학자이다.¹⁾

舍岩鍼法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지난 1980년대 초부터 진행된 金烏 김홍경의 『舍岩道人 鍼術原理 40일 講座』라고 할 수 있다. 그는 1984년 광화문에 神農百草 한의원을 개원한 이래로 최근까지 국내외 한의과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하계 방학기간 동안

총 30차에 걸쳐 『舍岩道人 鍼術原理 40일 講座』를 개최하여 舍岩鍼法 전수교육과 전국순회 대 국민 의료봉사활동을 앞장서서 추진하였다.²⁾ 그의 舍岩鍼法 이론은 현재까지 한의학계에 깊은 영향을 미쳐 현대 舍岩鍼法 研究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한의사 가운데 그의 저서와 강의를 접하지 않고 舍岩鍼法을 임상에 運用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舍岩鍼法 분야에서 그의 이론이 차지하는 위치는 가히 독보적이다.

金烏 김홍경은 經絡을 ‘의식과 감정의 통로’라고 새롭게 정의를 내렸고, 十二正經뿐만 아니라 奇經八脈 역시 唯心論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奇經八脈은 十二經脈의 8개의 經脈으로 督脈, 任脈, 衝脈, 帶脈, 陽維脈, 陰維脈, 陽蹻脈, 陰蹻脈을 말한다. 奇經八脈의 내용은 최초로 『內經』의 각 篇에 나타나고, 奇經八脈이란 명칭은 『難經』에 처음 보인다. 『難經』의 27難에서는 奇經의 개념 및 명칭을 기술하고 있고, 28難에서는

* 교신저자 : 윤창열 대전광역시 용운동 대전대학교 원전 학교실

E-mail : yooncy@dju.kr Tel : 042-280-2601

투고일 : 2014년 2월 3일 수정일 : 2014년 2월6일

게재일 : 2014년 2월 6일

1) 정해명. 金烏 김홍경의 舍岩鍼法 가설형성 배경과 그 運用에 관한 研究. 국제아시아전통의학대회(ICTAM) 발표논문. 2013.

2) 정해명. 金烏 김홍경의 舍岩鍼法 가설형성 배경과 그 運用에 관한 研究. 국제아시아전통의학대회(ICTAM) 발표논문. 2013.

奇經八脈의 起始, 순행, 기능 및 奇經八脈의 病證을 논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다. 특히 奇經八脈의 기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金烏 김홍경은 奇經八脈 가운데 任脈과 督脈은 각각 우리 마음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대표하는 經脈에 해당하고, 衝脈과 帶脈은 각각 우리 마음의 勇氣가 발현되는 남성성과 妊娠으로 대변되는 여성성을 대표하는 經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陰陽維脈과 陰陽蹻脈을 각각 선천적인 특성을 지닌 四象體質을 대표하는 經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奇經八脈의 기능과 특징에 대한 그의 독특한 견해는 아직까지 논문을 통해 발표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이러한 그의 奇經八脈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陰陽維蹻脈과 四象體質을 연결시켜 설명한 부분을 중심으로 研究하여 학계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김홍경의 奇經八脈觀

1) 奇經八脈

經絡은 흉복강 속에 있는 五臟六腑와 四肢 및 五官을 계통적으로 이어주는 연락체계인데, 十二經脈과 十五絡脈, 孫絡, 浮絡으로 층차를 나눈다.³⁾ 十二經脈 외에 인체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經脈으로 奇經八脈이 있다.⁴⁾ 奇經八脈의 유주는 주로 十二經脈과 중형으로 교차하며 전체 經絡계통에 대하여 조합과 통솔, 연락과 조절하는 등의 작용을 한다. 또한 十二經脈의 氣血을 조절하며 十二經脈의 氣血이 남아돌 때에는 奇經八脈에 유주하여 예비용으로 저장되고 十二經脈의 氣血이 부족할 때에는 奇經에서 보충해준다.⁵⁾ 다시 말해 奇經八脈은 任脈과 督脈을 제외

하면 평소 작동하지 않고 대기상태에 있다가 불이 났을 때 쓰는 防火水처럼 유사시에 비상용품과 같이 활용되는 經脈이라고 할 수 있다.

奇經八脈은 十二經脈에 대해서 ‘기이한 經脈’이라는 뜻의 ‘奇經’으로 불리며, 十二經脈은 ‘정상 經脈’이라는 뜻에서 ‘正經’으로 불린다.⁶⁾ 金烏 김홍경은 經絡을 ‘의식과 감정의 통로’라고 새롭게 정의를 내리고, 十二經脈과 奇經八脈이 가진 특성들을 唯心論적으로 해석하였는데, 이것은 經絡을 唯心論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鍼灸學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 奇經八脈 이론의 역사와 문헌적 특징

『黃帝內經』에는 衝脈, 任脈, 督脈, 陰陽蹻脈, 帶脈, 陰陽維脈 각각에 대한 기술 및 설명이 있으나 이들 여덟 脈을 ‘奇經八脈’이라는 명칭으로 묶어서 분류한 것은 『難經』에 가장 먼저 보인다.⁷⁾

『難經』에서 奇經八脈 학설을 제시한 이래로 『脈經』, 『諸病源候論』, 『黃帝內經太素』, 『太平聖惠方』, 『聖濟總錄』, 『十四經發揮』, 『奇經八脈考』, 『臨證指南醫案』, 『通俗韓醫學原論』 등의 서적에서 奇經八脈 학설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⁸⁾

『十四經發揮』와 『奇經八脈考』를 포함하여 역대 서적들에 奇經八脈의 유주부위나 穴位, 病症, 脈象에 대하여 많은 설명들이 덧붙여졌으나, 奇經八脈의 인체 내 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難經·二十七難』의 “脈有奇經八脈者, 不拘於十二經” 문장을 언급하는 데에서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醫學史 전체에서 볼 때 奇經八脈에 관한 醫書의 내용은 많지 않고, 특히 奇經八脈 모두를 十二經脈 전체와 대별하여 그 특성을 드

3) 유정아. 奇經八脈의 생리적 특성에 대한 고찰 - 『難經·二十七難』 “脈有奇經八脈者, 不拘於十二經”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3. p.81.
4) 김홍경. 사암침법으로 풀 경락의 신비. 서울. 식물추장. 2000. p.144.
5) 손인철. 奇經八脈의 특징과 임상적 의의 연구. 경락경혈학회지. 2008. p.45.

6) 유정아. 奇經八脈의 생리적 특성에 대한 고찰 - 『難經·二十七難』 “脈有奇經八脈者, 不拘於十二經”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3. p.81.
7) 유정아. 奇經八脈의 생리적 특성에 대한 고찰 - 『難經·二十七難』 “脈有奇經八脈者, 不拘於十二經”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3. p.72.
8) 유정아. 奇經八脈의 생리적 특성에 대한 고찰 - 『難經·二十七難』 “脈有奇經八脈者, 不拘於十二經”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3. p.75.

러낸 논의는 『難經』의 위 문장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⁹⁾

(2) 奇經八脈의 생리적 특성

『難經·二十七難』과 『難經·二十八難』에 이 여덟脈은 인체의 상하로 흐르는 正經의 十二脈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는데, 마치 홍수에 붓도랑을 가득 채운 물이 넘쳐 깊은 호수로 흘러들면 다시 붓도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¹⁰⁾

“脈에 奇經八脈이라는 것이 있어서 十二經에 구속되지 않는 것은 어찌해서입니까? 그렇습니다. 陽維, 陰維, 陽蹻, 陰蹻, 衝, 督, 任, 帶脈이 있는데, 이 여덟脈이 모두 經脈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奇經八脈’이라 부릅니다. 經脈에 열들이 있고 絡脈에 열다섯이 있어서 모두 스물일곱의 氣가 위아래로 서로 따르고 있는데, 어찌해서 유독 經脈에만 구속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聖인이 붓도랑을 기획하여 설치하시는 목적은 물길을 잘 통하게 물길이 잘 통하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림에 붓도랑이 가득 차게 되니, 이러한 때에는 비가 세차고 줄기차게 퍼부어 붓도랑의 물이 멋대로 흘러가므로 聖人께서도 물길을 되돌리기를 도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經脈이 가득차서 넘치는 것이니 모든 經脈이 능히 다시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¹¹⁾

“비유컨대, 聖인이 붓도랑을 기획하여 설치하였으나 붓도랑이 가득차서 넘치면 깊은 호수로 흘러가버려서 붓도랑을 만든 聖人이라도 잡아둘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脈이 융성해지면 八脈으로 들어가 버리고 되돌아 순환하지 않으므로, 十二經脈이 마찬가지로 잡아두지 못하는 것입니다.”¹²⁾

위 『難經』의 문장은 任督脈을 비롯한 여덟脈이 ‘奇經’으로 불리는 이유를 설명한 최초의 문장이다. 이 문장에서 正經의 十二脈은 ‘붓도랑’에, 奇經의 八脈은 ‘經脈이 가득차서 넘치는 것’과 ‘깊은 호수’에 비유되고 있다. ‘經脈이 가득차서 넘치는 것’은 奇經八脈이 經脈처럼 經脈과 經脈을 연결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經脈의 유주경로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經脈을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깊은 호수’는 奇經八脈이 絡脈과는 다르게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그 영역에 脈氣를 저장해 둘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¹³⁾ 이를 『聖濟總錄』에서는 ‘人之氣血 上行于十二經脈 其諸經滿溢則流入 奇經焉.’¹⁴⁾이라고 하였다.

清代 葉天士는 그의 저서 『臨證指南醫案』에서 “八脈隸于肝腎”이라고 기술하였다.¹⁵⁾ 奇經八脈은 肝, 腎 등의 臟과 女子胞, 腦, 髓 등의 奇恒之府와 비교적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는 생리, 병리상에 일정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督脈은 腦로 들어가고, 督脈, 任脈, 衝脈은 모두 “胞中”에서 起始한다.¹⁶⁾

2) 任督脈과 帶衝脈

奇經八脈 가운데 帶脈은 腰腹部의 經脈과 통하며 衝脈은 從으로 통하여 三陰三陽에 관여하고, 督脈은 陽을 총괄하고 任脈은 陰을 총괄한다.¹⁷⁾ 金烏 김홍경은 奇經八脈 가운데 任脈과 督脈, 帶脈과 衝脈을 각각 긍정과 부정, 여성성과 남성성과 같은 陰陽을 대표하는 특성으로 구성된 經脈으로 파악하였다. 그 특성을 요약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

9) 유정아. 奇經八脈의 생리적 특성에 대한 고찰 - 『難經·二十七難』 “脈有奇經八脈者, 不拘於十二經”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3 p.72.

10) 유정아. 奇經八脈의 생리적 특성에 대한 고찰 - 『難經·二十七難』 “脈有奇經八脈者, 不拘於十二經”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3 p.81.

11) 윤창열, 김용진 編著. 難經研究集成. 대전. 周民出版社. 2007. p.525.

12) 윤창열, 김용진 編著. 難經研究集成. 대전. 周民出版社. 2007. p.532.

13) 유정아. 奇經八脈의 생리적 특성에 대한 고찰 - 『難經·二十七難』 “脈有奇經八脈者, 不拘於十二經”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3 p.82.

14) 趙佶編. 聖濟總錄(4). 서울. 醫聖堂. 1993. p.3175.

15) 葉天士. 葉天士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68.

16) 나창수의 18인 共編. 한의학총강. 서울. 醫聖堂. 2003. p.381.

17) 손인철. 奇經八脈의 특징과 임상적 의의 연구. 經絡經穴學會誌. 2008. p.45.

(1) 任脈과 督脈

任脈은 陰脈之海가 되고, 督脈은 陽脈之海가 된다. 이 두 脈은 모두 胞中에서 시작하여 會陰에서 만나 상호 교통함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¹⁸⁾ 그러나 任脈은 인체 前面의 정중앙을 흐르고, 督脈은 인체 後面의 정중앙을 흐르고 있으므로 陰陽은 정반대가 된다. 任脈의 기능은 胞胎를 주하고 督脈의 기능은 腦, 脊髓, 腎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金烏 김홍경은 “말길 任자가 암시하듯 신임의 經脈인 任脈과 살펴볼 督자가 암시하듯 감독의 經脈인 督脈은 마음의 긍정인 믿음과 마음의 부정인 의심과 같은 陰陽을 매우 뚜렷하게 드러내 주는 經脈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任脈은 신임하는 마음을 지닐 때 잘 발동하는 經脈이고, 督脈은 의심하는 마음을 지닐 때 잘 발동하는 經脈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任脈이 會陰穴에서 시작해서 아랫입술 아래에서 끝나는 陰氣가 집약되어있는 經脈이어서 任脈이 발달한 사람은 수용하고 신임하는 陰의인 만족의 특성을 지니게 되고, 督脈은 長強穴에서 시작하여 윗입술 안쪽에서 끝나는 陽氣가 집약되어있는 經脈이어서 督脈이 발달한 사람은 공격하고 감독하는 陽의인 불만족의 특성을 지니게 된다. 이에 따라 任督脈이 교차하는 아랫입술과 윗입술의 大小, 光澤, 厚薄, 色 등은 임상현장에서 望診을 행함에 있어 환자의 陰陽虛實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診斷處가 된다. 또한 환자의 선천적 혹은 습관적인 입술꼬리의 방향과 경사도를 통해서 환자의 任督脈 虛實과 그에 따른 감정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판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任督脈의 陰陽이 相反되듯이 우리 마음의 相反된 정서를 任督脈과 결합시켰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2) 帶脈과 衝脈

衝脈에 대해 『靈樞』 「逆順肥瘦」에서는 “夫衝脈

者 五臟六腑之海也.”¹⁹⁾라 하였고 『靈樞』 「動輸」에서는 “衝脈者 十二經脈之海也.”²⁰⁾라고 하였으니, 五臟六腑와 十二經脈의 氣血을 수용하고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또한 『素問』 「上古天真論」에서 “女子.....二十而天癸至 任脈通 太衝脈盛 月事以時下 故有子.”²¹⁾라 하였듯이 衝脈은 婦女子의 月經 및 妊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素問』 「靈蘭秘典論」에 “腎者, 作強之官, 技巧出焉.(腎은 作強의 官으로 技巧가 여기서 나온다.)”이라고 하였다.²²⁾ 金烏 김홍경은 “衝脈은 足少陰腎經에 차용되어 있어서인지 그 이름이 암시하듯 衝動적인 성격을 지닌 經脈인데, 충동적인 衝脈은 남성들의 특징을 대표하는 經脈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衝脈이 作強之官으로 技巧의 원천이 되는 足少陰腎經에 차용된 經脈이라는 점을 들어 무술의 고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운동선수는 衝脈을 발달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作強”의 3가지 의미를 근거로 하였을 때 매우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腎의 “作強”의 작용은 주로 3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骨格을 강건하게 하여 오래 버틸 수 있게 체력을 강하게 한다. 둘째, 髓海가 충만하게 하여 사유작용을 민첩하게 한다. 셋째, 동작을 영민하게 한다. 이로써 볼 때 사람의 技巧가 모두 腎精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²³⁾ 위에서 나열한 3가지 조건은 무술의 고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운동선수가 갖추어야 할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帶脈에 대해 『靈樞』 「經別」에서 “足少陰之正 至臍中 別走太陽 而合上至腎 當十四椎 出屬帶脈.”²⁴⁾이라 하였다. 『內經』에는 帶脈의 순행부위

18) 나창수의 18인 共編. 한의학총강. 서울. 醫聖堂. 2003. p.387.

19) 홍원식.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276.
 20) 홍원식.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311.
 21) 홍원식.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1.
 22) 나창수의 18인 共編. 한의학총강. 서울. 醫聖堂. 2003. p.260.
 23) 나창수의 18인 共編. 한의학총강. 서울. 醫聖堂. 2003. p.261.

에 대해서 구체적인 서술이 없지만 위의 내용을 통해 14椎의 양쪽에 위치하고 있는 腎臟과의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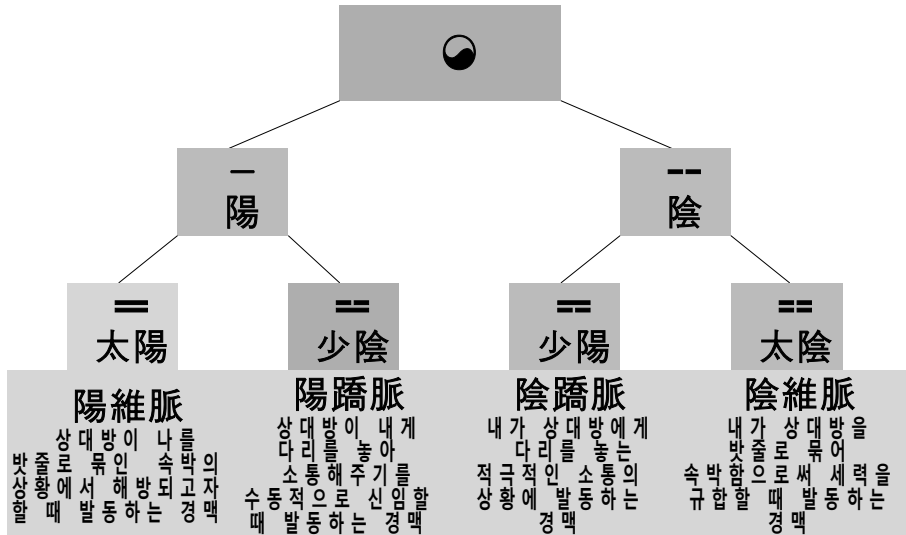
金烏 김홍경은 “帶脈은 足少陽膽經에서 차용되어 있어서인지 ‘띠를 두르다.’라는 그 이름이 암시하듯 帶脈은 우리가 무엇을 옆에 끼고 다닐 때나 妊娠하였을 때 발동이 되는 經脈으로 여성들의 특징을 대표하는 經脈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妊娠婦가 胎兒를 母體 안에서 잘 자라게 하는 것은 任脈과 연결된 帶脈의 기능이 왕성한 덕분이라고 주장하였다.

3) 陰陽維脈 및 陰陽蹻脈과 四象體質의 상관성

北宋代의 저명한 선술가로 仙術中南派의 首領이었던 張紫陽(984~1082)은 八脈經에서 ‘八脈者는 先天之大道의 根本이다.’고 하여 ‘奇經八脈이 선천적인 자연법칙의 근본이고 一氣의 근본이다.’고 하였다. 따라서 奇經八脈은 先天之生命의 原氣에 근원하며 十二經脈은 奇經八脈의 작용에 힘입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²⁵⁾

金烏 김홍경은 陰陽²⁶⁾에서 분화되어 八卦 이전에 해당하는 四象²⁷⁾을 先天象이라고 보아 奇經八脈 가운데 陽維脈, 陰維脈, 陽蹻脈, 陰蹻脈을 각각 東武 이제마가 창시한 四象體質 이론의 太陽人, 太陰人, 少陰人, 少陽人과 상관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하였다. 陰陽維蹻脈과 四象體質의 상관성은 <그림 1>과 같이 四象卦象에서 陽維脈과 陰維脈의 아래에 깔리는 陽爻를 ‘상대방이 내게’, 陰爻를 ‘내가 상대방에게’로, 위에 깔리는 陽爻를 ‘뺏줄로 꿰뚫어 속박함으로부터의 해방되고자 할 때’, 陰爻를 ‘뺏줄로 꿰뚫어 속박함으로써 세력을 규합할 때’로, 陽蹻脈과 陰蹻脈의 아래에 깔리는 陽爻를 ‘상대방이 내게’, 陰爻를 ‘내가 상대방에게’로, 위에 깔리는 陽爻를 ‘적극적으로 다리를 놓는 소통할 때’, 陰爻를 ‘수동적으로 다리를 놓아 소통해주시기를 신임할 때’로 周易卦象을 활용하여 증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金烏 김홍경의 金烏一針歌²⁸⁾에 수록된 내용과 論者가 金烏 김홍경의 구술을 통하여 전해 들었



<그림 1> 陰陽維蹻脈과 四象體質

24) 홍원식.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236.
 25) 손인철. 奇經八脈의 특징과 임상적 의의 연구. 經絡經穴學會誌. 2008. p.46.

26) 金烏 김홍경은 太極에서 분화된 陰陽을 周易卦象으로 살펴보았을 때 陰爻는 나, 陽爻는 너를 상징한다고 하였다.
 27) 陰陽에서 분화된 四象을 周易卦象으로 분석하면 太陰人은 ‘내가 묶는다.’, 太陽人은 ‘남이 묶는다.’, 少陽人

던 내용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요약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

(1) 陽維脈과 太陽人

『難經集注』「二十八難」에서 “陽維者 維絡諸陽.”²⁹⁾이라고 하였다. 陽維脈은 全身의 陽經을 연계, 연락하는 작용을 한다.

金烏 김홍경은 “陽維脈에서 陽은 '너'를 뜻하고, 밧줄 維는 '묶는다.'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陽維脈은 대체로 상대방이 나를 속박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여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자 하는 상황에 발동하는 經脈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선천적으로 조직으로부터 구속받는 것을 거부감을 느끼고, 말이나 행동이 법도에 어긋난 상대방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한 太陽人 體質을 가진 사람들에게 잘 발동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반항심과 사무적인 의심이 강하여 陽維脈이 잘 발동하는 太陽人은 혁명가와 판검사에 적합한 體質이라고 추리할 수 있다.

(2) 陰維脈과 太陰人

『難經集注』「二十八難」에서 “陰維者 維絡諸陰.”³⁰⁾이라고 하였다. 陰維脈은 全身의 陰經을 연계, 연락하는 작용을 한다.

金烏 김홍경은 “陰維脈에서 陰은 '나'를 뜻하고, 밧줄 維는 '묶는다.'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陰維脈은 대체로 내가 상대방을 속박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즐기는 상황에 발동하는 經脈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선천적으로 사람들을 규합하여 朋黨을 잘 조성하는 太陰人 體質을

은 '내가 다리를 놓는다.' 少陰人은 '남이 다리를 놓는다.'라는 것과 같이 唯心論적인 개념으로 四象體質의 해석이 가능해진다.

28) 김홍경. 金烏一針歌(4). 사암침법연구회. 舍岩道人鍼術原理 40日 講座 교재.

“음교양교 상호소통 다리교차 천명하라
음유양유 봉당조성 태음당여 비슷하다
사무당여 공사양음 태양태음 사상체질
거처교우 소음소양 동무선생 사상분별“

29) 王惟一 撰, 難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51.

30) 王惟一 撰, 難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51.

가진 사람들에게 잘 발동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내편으로 무리 짓는 조직구성 능력이 강하여 陰維脈이 잘 발동하는 太陰人은 정치가와 기업회장에 적합한 體質이라고 추리할 수 있다.

(3) 陽蹻脈과 少陰人

『奇經八脈考』에서 “陽蹻者 足太陽之別脈.”³¹⁾이라 하였고, 『難經集注』「二十八難」의 陽蹻脈注에서 “楊曰 蹻捷疾也 言此脈 是人行走之機要 動足之所由 故曰蹻脈焉.(양씨가 이르기를 蹻는 민첩하고 빠르다는 뜻이니, 이 脈은 사람이 걷고 달리는 기틀의 핵심이 되고, 발을 움직이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蹻脈이라고 말한 것이다)”³²⁾라고 하였다. 이는 蹻脈이 下肢의 운동기능을 조절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金烏 김홍경은 “陽蹻脈에서 陽은 '너'를 뜻하고, 발돋움할 蹻는 '다리를 놓다.'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陽蹻脈은 대체로 수동적으로 상대방이 내게 다리를 놓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발동하는 經脈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선천적으로 소극적이고 거처를 정하고 잘 움직이지 않는 내성적인 少陰人 體質을 가진 사람들에게 잘 발동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종교적인 신심과 예술적인 감각이 강하여 陽蹻脈이 잘 발동하는 少陰人은 종교인과 예술가에 적합한 體質이라고 추리할 수 있다.

(4) 陰蹻脈과 少陽人

『奇經八脈考』에서 “陰蹻者 足少陰之別脈.”³³⁾이라 하였고, 『靈樞』「寒熱病」에서 “陰蹻 陽蹻 陰陽相交..... 交於目內眥 陽氣盛則瞋目 陰氣盛則瞑目.(陰蹻脈과 陽蹻脈으로 나뉜다. 陰陽이 서로 교차하여..... 눈의 內眥에서 교차하니, 陽氣가 성하면 눈을 뜨고 잠에서 깨며, 陰氣가 성하면 눈을 감고 잠을 잔다.)”³⁴⁾이라고 하여 陽蹻脈

31) 朴晔 譯釋. 國譯 瀕湖脈學 四言學要 奇經八脈考.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150.

32) 王惟一 撰, 難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51.

33) 朴晔 譯釋. 國譯 瀕湖脈學 四言學要 奇經八脈考.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146.

과 陰蹻脈은 眼瞼의 開闔을 주관한다고 하였다.

金烏 김홍경은 “陰蹻脈에서 陰은 '나'를 뜻하고, 발돋움할 蹻는 '다리를 놓다.'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陰蹻脈은 대체로 능동적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접근해서 다리를 놓아 친분을 쌓는 상황에 발동하는 經脈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선천적으로 매사 적극적이고 교우에 능하여 사교적인 少陽人 體質을 가진 사람들에게 잘 발동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자기절제의 겸손성과 소통능력이 강하여 陰蹻脈이 잘 발동하는 少陽人은 운동선수와 연예인에 적합한 體質이라고 추리할 수 있다.

III. 結 論

김홍경의 奇經八脈觀에 관한 研究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金烏 김홍경은 經絡을 ‘의식과 감정의 통로’라고 새롭게 정의를 내리고, 十二經脈과 奇經八脈이 가진 특성들을 唯心論적으로 해석하였는데, 이것은 經絡을 唯心論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鍼灸學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金烏 김홍경은 “말길 任자가 암시하듯 신임의 經脈인 任脈과 살피볼 督자가 암시하듯 감독의 經脈인 督脈은 마음의 긍정인 믿음과 마음의 부정인 의심과 같은 陰陽을 매우 뚜렷하게 드러내주는 經脈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任督脈의 陰陽이 相反되듯이 우리 마음의 相反된 정서를 任督脈과 결합시켰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3. 金烏 김홍경은 “衝脈은 足少陰腎經에 차용되어 있어서인지 그 이름이 암시하듯 衝動적인 성격을 지닌 經脈인데, 충동적인 衝脈은 남성들의 특징을 대표하는 經脈이고, 帶脈은 足少陽膽

經에서 차용되어 있어서인지 ‘띠를 두르다.’라는 그 이름이 암시하듯 帶脈은 우리가 무엇을 옆에 끼고 다닐 때나 妊娠하였을 때 발동이 되는 經脈으로 여성들의 특징을 대표하는 經脈이다.”라고 주장하였다.

4. 金烏 김홍경은 陰陽에서 분화되어 八卦 이전에 해당하는 四象을 先天象이라고 보아 奇經八脈 가운데 陽維脈, 陰維脈, 陽蹻脈, 陰蹻脈을 각각 東武 이제가 창시한 四象體質 이론의 太陽人, 太陰人, 少陰人, 少陽人과 상관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하였다.

5. 金烏 김홍경은 “陽維脈에서 陽은 '너'를 뜻하고, 밧줄 維는 '묶는다.'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陽維脈은 대체로 상대방이 나를 속박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여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상황에 발동하는 經脈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선천적으로 조직으로부터 구속받는 것을 거부감을 느끼고, 말이나 행동이 법도에 어긋난 상대방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한 太陽人 體質을 가진 사람들에게 잘 발동한다.”고 주장하였다.

6. 金烏 김홍경은 “陰維脈에서 陰은 '나'를 뜻하고, 밧줄 維는 '묶는다.'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陰維脈은 대체로 내가 상대방을 속박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즐기는 상황에 발동하는 經脈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선천적으로 사람들을 규합하여 朋黨을 잘 조성하는 太陰人 體質을 가진 사람들에게 잘 발동한다.”고 주장하였다.

7. 金烏 김홍경은 “陽蹻脈에서 陽은 '너'를 뜻하고, 발돋움할 蹻는 '다리를 놓다.'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陽蹻脈은 대체로 수동적으로 상대방이 내게 다리를 놓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발동하는 經脈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선천적으로 소극적이고 거처를 정하고 잘 움직이지 않는 내성적인 少陰人 體質을 가진 사람들에게 잘 발동한다.”고 주장하였다.

34) 홍원식.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250.

8. 金烏 김홍경은 “陰蹻脈에서 陰은 '나'를 뜻하고, 발돋움할 蹻는 '다리를 놓다.'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陰蹻脈은 대체로 능동적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접근해서 다리를 놓아 친분을 쌓는 상황에 발동하는 經脈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선천적으로 氣가 적극적이고 교우에 능하여 사교적인 少陽人 體質을 가진 사람들에게 잘 발동한다.”고 주장하였다.

9. 陰陽維蹻脈과 四象體質의 상관성은 四象卦象에서 陽維脈과 陰維脈의 아래에 깔리는 陽爻를 ‘상대방이 내게’, 陰爻를 ‘내가 상대방에게’로, 위에 깔리는 陽爻를 ‘밋줄로 꿰뚫어 속박으로부터의 해방되고자 할 때’, 陰爻를 ‘밋줄로 꿰뚫어 속박함으로써 세력을 규합할 때’로, 陽蹻脈과 陰蹻脈의 아래에 깔리는 陽爻를 ‘상대방이 내게’, 陰爻를 ‘내가 상대방에게’로, 위에 깔리는 陽爻를 ‘적극적으로 다리를 놓는 소통할 때’, 陰爻를 ‘수동적으로 다리를 놓아 소통해주시기를 신임할 때’로 周易卦象을 활용하여 證明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參考文獻

<참고논문>

1. 손인철. 奇經八脈의 특징과 임상적 의의 연구. 경락경혈학회지. 2008.
2. 유정아. 奇經八脈의 생리적 특성에 대한 고찰 - 『難經二十七難』 “脈有奇經八脈者, 不拘於十二經”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3.
3. 정해명. 金烏 김홍경의 舍巖鍼法 가설형성 배경과 그 運用에 관한 研究. 국제아시아전통의학대회(ICTAM) 발표논문. 2013.

<참고서적>

1. 金烏 김홍경. 사암침법으로 풀 경락의 신비. 식물추장. 2000.
2. 나창수의 18인 共編. 한의학총강. 서울. 醫聖堂. 2003.

3. 박경 譯釋. 國譯 瀕湖脈學 四言舉要 奇經八脈考. 서울. 大星文化社. 1992.
4. 葉天士. 葉天士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68.
5. 王惟一 撰. 難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6. 윤창열, 김용진 編著. 難經研究集成. 대전. 周民出版社. 2007.
7. 趙佶編. 聖濟總錄(4). 서울. 醫聖堂. 1993.
8. 홍원식.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참고사이트>

1. 金烏 김홍경을 사랑하는 사람들(<http://cafe.daum.net/ilovekim0>)
2. 사암한방의료봉사단(<http://www.saam.net>)